

第46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本會議會議錄

開會式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5年9月19日(火) 午前10時 開式

第46回(臨時會)開會式順

1. 開 式
1. 國旗에 대한 敬禮
1. 愛國歌齊唱
1. 殉國先烈 및 戰歿護國勇士에 대한 默念
1. 開會辭
1. 閉 式

(司會：議事係長 鄭恩秀)

(10時00分 開式)

○議事係長 鄭恩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한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議長 柳成烈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선선해져서 풍요의 계절 가을이 우리앞에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는 때입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보다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연초에 계획한 각종 사업과 구정목표를 이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마무

리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벌써 2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두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구민의 대변자인 입법기관으로서의 기틀을 다지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이를 수행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그에 의한 행정을 실천시킴으로서, 주민에게 인간답고 건강하며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현대복지국가의 이념 실현이라는 큰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서 발전시켜 나가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어렵고 힘든 문제가 제기되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가 표출되는 주민자치 실현의 과도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원화된 변화에 대응해서, 참되고 슬기로운 성북의회인의 자세로 중지를 모아 나갈때 우리 성북은 한층 발전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46회 임시회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민의 현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건들이 많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인 구청으로부터 구정업무 보고를 받음은 물론,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산은 구행정의 정책방향을 예산서에 숫자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상세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구민의 뜻과 여망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도 이제 3개월정도 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기간동안, 의회와 구청이 수레의 두바퀴처럼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본격 지방화시대의 원년으로써 초석을 다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議事係長 鄭恩秀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10시17분 閉式)